



# 각각의 인쇄업체 운영하는 쌍둥이형제 정영웅 · 영인 사장

기획에서부터 제작까지 인쇄의 전 공정을 일괄처리하고 있는 출판인쇄 전문업체인 영문화사(대표 정영웅)와 또다른 영문화사(대표 정영인). 이 두 회사는 평범한 인쇄업체지만 주위에는 꽤나 이색적인 회사로 알려져 있다.

사업장이 동일장소이고 상호도 '영문화사'로 똑같지만 각각 다른 사업자 등록번호로 쌍둥이 형제가 각각 운영하는 회사이기 때문이다. 현재 서울시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이사장 이충원)에 가입돼 있는 업체 중 유일하게 쌍둥이 형제가 같은 상호명을 가지고 각각 운영하고 있는 회사다.

형인 정영웅(34)씨와 동생인 정영인(34)씨는 일란성 쌍둥이로 5분 간격을 두고 태어났다. 대부분의 쌍둥이 형제는 구분을 쉽게 할 수 있도록 각자 다른 머리 모양이나 옷 취향 등을 통해 다양한 아이디어를 짜내기 마련이다. 그런데 이들 형제는 예외다. 얼굴이 똑같은 것이야 당연한 이치겠지만 사업장 상호와 주소도 같다. 심지어 단말기는 각각 사용하지만 이동통신 번호까지 같다.

다른 점이 있다면 이름과 결혼 여부뿐이다. 형은 기훈이

지만 동생은 미훈이다. 영문화사는 영웅과 영인의 돌림자에서 따왔다.

1996년, 형이 영문화사라는 상호로 서울 중구 인현동에서 출판인쇄 사업을 시작했고 이듬해 동생이 같은 상호로 필동에서 디자인 사무실을 냈다.

이후 형은 기획·편집 등에서 동생의 업무와 중복되는 점을 감안,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해 9월, 충무로에 있는 동생의 사업장으로 회사를 옮겼다. 이후 영문화사는 형인 영웅씨가 대외 업무를 전담하고 동생인 영인씨는 업체 관리와 기술 분야를 책임지고 있다. 각각 1년 매출액 3억원 규모의 작은 업체를 운영하고 있지만 출판과 인쇄의 팔방미인을 꿈꾸며 사업 기반 구축에 여념이 없는 이들 쌍둥이 형제를 만나봤다.

## 쌍둥이의 사업 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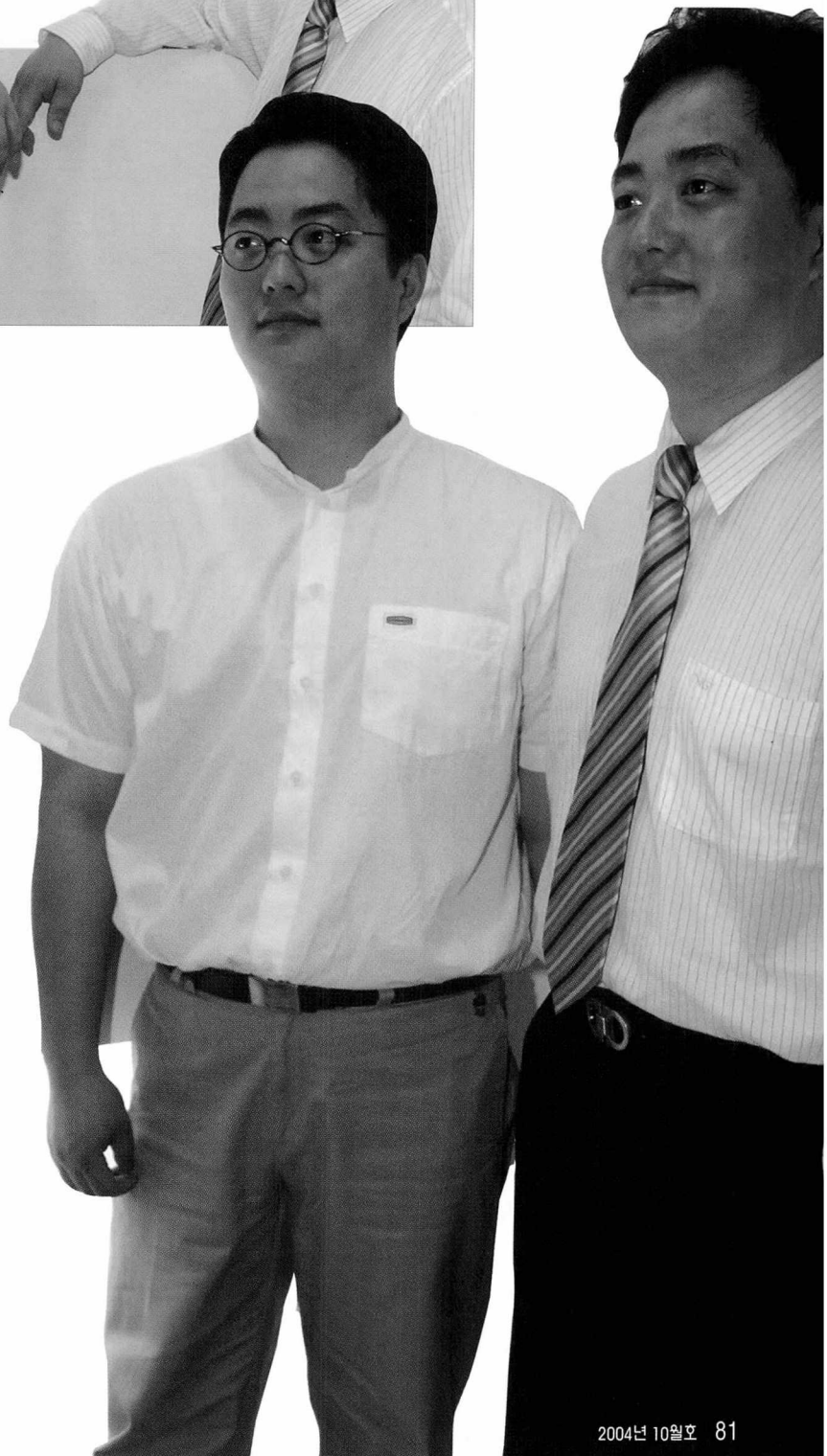
형 영웅씨는 숭실대 전자공학과(90학번), 동생 영인씨는 한양대 전기공학과(90학번)를 졸업했다. 현재 같은 사업



왼쪽은 동생인 영인씨, 오른쪽은 형 영웅씨

장에서 각각의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지만 독립된 회사의 사장들이다. 일란성 쌍둥이지만 성격은 차이는 있다. 형은 긍정적이고 활달한 반면 동생은 내성적이고 꼼꼼한 편이다. 이때문인지 형인 영웅씨는 거래처 관리 및 영업에 매진하고 있고 기술적인 부분과 운영, 관리는 동생인 영인씨의 몫이다. 철저한 업무 분담을 바탕으로 전·후방을 탄탄하게 키워나가고 있다.

현재 영문회사는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등 관공서를 주 거래처로 두고 CD 타이틀부터 단행본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납품 품목을 동시에 처리하고 있는 업체. 영웅씨는 업무 분담과 관련, "서로의 성격이 최대한 반영됐다고 보면 됩니다. 저는 주로 대외적인 업무를 담당하고 있을 때 동생은 작업에 차질이 없도록 기술적인 부분을 맡고 있습니다"라고 말한다.



영문회사에는 또 특별한 직원이 있다. 바로 쌍둥이 형제의 아버지다. 이들 형제는 '정신적 지주'라는 표현을 쓸 정도로 아버지를 지극 정성으로 대한다. 이제는 자신들이 바라볼 수 있는 가장 가까운 곳에서 지켜드려야 한다는 마음을 지닌 효성이 지극한 쌍둥이다. 영웅씨는 "현재 아버님은 고문 직함으로 회사에 출근하고 계십니다. 조금씩 운동을 하시는 게 건강을 유지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거든요. 덕분에 명분있는 용돈을 드리게 돼 기분이 흐뭇합니다"라고 귀띔했다.

### 34년의 쌍둥이 에피소드

"이제는 서로의 목소리만 들어도 무엇을 하고자 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만큼 살아온 시간들이 서로에게 녹아 있다고나 할까요. 현재 저희가 가진 최대 장점을 꼽으라면 시너지 효과를 두배로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명이 한 곳을 바라보고 있으니깐요."

이 형제는 지난 34년 동안 쌍둥이로 살아온 시간 만큼의 축적된 이야기 보따리를 풀어놓았다. 이에 대해 이구동성으로 "미팅은 쌍둥이의 기본적인 소재거리죠. 비슷한 얼굴을 보고 많이 헛갈려 했습니다. 저희들한테는 재미있는 일이지만 상대방은 조금 피곤했겠죠"라며 너스레를 떤다.

영인씨는 "지난 일이지만 형과 저는 대학교 교양 과목이 비슷한 경우가 많았어요. 한번은 형 시험 시간에 제가 대신 들어가서 시험을 치른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실수로 제 학번을 그대로 쓰는 바람에 들통이 나 결국 형은 그 과목을 재수강해야 했습니다"라고 회고했다.

외모가 비슷한 탓에 아는 지인들과 교류를 할 때 서로의 외모와 목소리를 두고 혼란스러워 하는 경우도 많았다고 한다. 이동통신 번호가 동일해 이와 관련된 장·단점을 묻자 형인 영웅씨는 "단점은 거의 없습니다. 술자리 모임 전화 같은 경우를 예로 들 수 있죠. 가끔 불편한 자리에 참석하라는 전화가 오면 서로가 자신이 아니라는 핑계를 대면서 넘어갈 수가 있죠"라며 웃었다.

하지만 이 쌍둥이 형제는 동일한 시·공간에서 같은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것만큼 더한 에피소드는 없다고 전했다.

### 영문회사는 또 하나의 쌍둥이

영문회사는 이들이 같은 업종에서 8년동안 종사를 하다가 얻은 또 하나의 쌍둥이다. 이들은 서로가 소중하게 지켜 나가자는 의기 투합을 한마디 말 대신 눈빛 교환으로 대신한다. 자세히 바라보니 바라보는 눈매가 서로 비슷하



다. '피식' 하며 씩스러워 웃는 시간까지 미리 시간을 정해 놓은 것 같다. "저희들 생이 다하는 날까지 영문회사와 함께 할 계획입니다. 보이지는 않지만 저희에게는 서로를 연결시켜 주는 일종의 끈이라고나 할까요."

또한 이들은 주저 없이 영문회사에 대해 '열차의 선로'와 같다는 적절한 비유법을 섞는다. 서로를 마주 보고 있지만 가야할 곳과 지나온 길이 같다는 뜻이다. 영웅씨는 "영문회사는 우리들의 정신적인 모습뿐만 아니라 현실적인 삶을 대변해 주는 또 하나의 쌍둥이죠. 사업을 하면서 영리 추구에 급급한 결과보다는 서로에게 버팀목이 돼 주는 과정이 저희들에게는 더 소중합니다"라고 전한다. 각자 맡은 업무와 만나는 이들이 서로 다른 쌍둥이 형제. 신체적인 생리 리듬까지 같을 수는 없지만 걸어가는 뒷모습에서 이들이 쌍둥이라는 것을 느끼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았다.

〈장홍일 기자〉